

전주서부시장 청년몰 선정

중기청, 15억 지원 지역상권 랜드마크 육성 계획… 군산공설 시장도

전주서부시장이 쇼핑과 문화, 전통, 체험 등이 융합된 청년몰로 선정돼 사업비 15억원을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청은 전주 서부시장과 군산 공설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16곳을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인 '청년몰'로 선정, 지역상권의 랜드마크로 키운다 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선정된 시장은 인천 강화중앙시장을 비롯, 경기 수원 영동시장, 경기 평택 통복시장, 강원 원주중앙시장, 전주 서부시장상점가, 구미 선산종합시장 등 모두 16개다.

이들 시장은 내년 말까지 기반 조성과 점포 리모델링, 전략적 업종 배치 등을 거쳐 청년상인을 모집해 점포에 입점하게 된다.

청년몰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연계한 프리미엄, 체험 프로그램 운영, 테마거리 조성 등 다양한 공동 마케팅과 상권의 강점을 살려 '1스토리 1브랜딩'과 SNS·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고객 유입율 등을 펼친다.

전주서부시장은 25개 점포가 들어서게 된다.

군산 공설시장은 20개 점포가 육성된다.

한편 정운천(새누리당, 전주을) 의원은 전주서부시장상인회(회장 민병남)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서부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해온 바 있다.

정운천 의원은 "청년몰이 젊은 고객 유입 등 서부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 넣고, 쇼핑과 문화, 놀이가 융합된 지역상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이번 교육에 참여한 중견기업 출신 퇴직자 이모(56)씨는 "재취업과 창업에 국한된 퇴직준비에서 더 확장해 보다 구체적인 생애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인생2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 유익했다"고 전했다.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창직지도사 수료생 20명 배출

전북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지난 31일 전북지역에서는 최초로 창직 지도사 수료생 20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창직 관련 고용노동부 유일인 기관체인 (사)한국창직협회와 손잡고 운영한 '2016년 창직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됐다.

교육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8주에 걸쳐 40세 이상 취(창)업을 희망하는 전북 지역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창직지도사 2급(민간)

8주 걸쳐 프로그램 진행

자격증을 취득, 전북지역 특색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중장년층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거듭나게 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중견기업 출신 퇴직자 이모(56)씨는 "재취업과 창업에 국한된 퇴직준비에서 더 확장해 보다 구체적인 생애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인생2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 유익했다"고 요한 내용들이 많아 유익했다"고

전했다.

노사법전체단 전북센터의 김인수 소장은 "그동안 중장년층의 직업에 대한 진로가 '재취업' 또는 '창업 개념에서 앞으로는 청직'이 당당히 진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지역에서 국소수에 불과한 창직전문가를 더욱 양성해 2016 창직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전북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11미터 초대형 쿵푸팬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 신세계면세점 본점 옥상에 대형 쿵푸팬더 조형물이 설치됐다.

다. 신세계백화점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가운데 하나인 '쿵푸팬더'를 11m 크기의 벌룬으로 제작해 설치했다.

공기청정기·마스크 '불티'

최악의 미세먼지 지속때문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외출 자제가 최선이지만 출퇴근 길은 물론이고 일상 생활에서 집에만 있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럴듯 외출할 때 입은 굳게 다물어지지만 호흡기 건강 우려에 어쩔 수 없이 지갑은 열린다.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업종을 불문하고 공기청정기, 마스크, 구강청결제, 공기정화식물 등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이 불티나케 팔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간(5월 1~30일) 미세먼지 관련 상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마스크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0%가 넘는 매출 신장을 기록했

고, 물티슈(75.9%), 젤레/청소포(30.2%) 등의 소비도 많았다.

옥션에서도 같은 기간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 미세먼지 관련 상품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04% 판매가 늘었다.

특히 손세정용품(258%) 일회용마스크(221%), 공기청정기필터(84%), 산소캔(57%) 등 상품의 신장률이 두드러졌다.

11번가에서도 마스크, 구강청결제, 공기정화식물 등 관련 상품의 같은 기간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마스크는 552%, 구강청결제는 379%, 공기청정기는 105%, 공기정화식물은 78% 매출이 늘었다. 이 밖에 노스크(코 전용 마스크), 휴대용 공기청정기 등 이색적인 제품들도 새롭게 인기를 얻는 추세다.

/인진수기자

농식품부 "채소 수급 안정세"

배추, 무,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채소류는 최근 작황이 양호해 극심한 기상이변 등 불발 변수가 없는 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배추와 무는 5월 중순부터 노지 봄배추와 무가 출하되고 있고 양파와 마늘은 6월부터 중만생종 양파와 햇마늘이 출하될 예정이다. 특히 마늘은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닭고기 광우병 대비 사육마릿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진수 기자

'1인 창조기업 JUMP DAY' 개최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2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 JUMP DAY'를 개최한다.

'JUMP DAY'는 1인창조기업의 역량강화와 on day 특강과 기업간 네트워킹이 어우러진 중소기업 경쟁력 '점프'를 지원하는 특화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시니어센터 입주기업을 포함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이번 행사가 3개의 특강(역량+마케팅+수출)과 입주기업과의 네트워킹이 포함되어 있어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했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1인 창조기업, 센터 입주기업,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로 우리 지역내 1인 창조기업과 창업초기 기업들의 역량강화 및 소통 등을 통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독립운동가 기념우표 발행

독립운동가 '호국영웅' 기념우표가 발행된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해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우표 2종, 총 70만장을 1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우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운동을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영화 '암살' 실제 인물)과 국어로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한 주시경 선생 등 호국영웅 2인을 소재로 했다.

전북우정청 관계자는 "우표디자인은 호국영웅의 결의가 부각되도록 인물의 모습을 강조했으며 뒷 배경은 독립기념관 주모의 자리 인근에 설치된 남자현 어록비와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 중인 말모이원고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본인이 뚱뚱하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